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추석 연휴 안전망 구축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읍시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보건소·의료기관·약국 141개소와 함께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명절 기간 의료 공백을 막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2025년 추석 명절 비상진료대책에는 보건기관 12개소(보건소 1곳, 보건진료소 11곳), 정읍아산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89개소, 약국 40개소가 참여한다. 특히 정읍아산병원은 지역 응급요센터로서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각 보건기관과 지정 의료기관은 일차별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휴일지킴이약국 40개소도 지정 운영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추석맞이 부안사랑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부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한 달간 부안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성수기에 군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안사랑상품권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구매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명절 전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부안군 자체 민생안정지원금이 함께 지급되어 군민들의 높은 소비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 청렴교육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26일 4층 시청각실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금품·선물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김영모 청렴 전문강사가 맡아 '청렴관련 법령의 이해와 청렴이 만드는 경쟁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OX 퀴즈 형식을 활용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법령과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숙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명절을 비롯한 일상 속에서도 청렴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으로 신뢰받는 고창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의 매력 널리 알리는 데 최선”

정읍시 관광체육국 정례브리핑 통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현안 공유

정읍시는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관광체육국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과 관광객의 삶과 밀접한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이 나서 관광자원과 체육·산림 분야의 현안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먼저 잠금설치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테마파크 '잠금이파크'의 개관을 소개했다. 음식과 치유, 힐링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즐기며 건강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과 주차 질서 관리, 불법 영업 단속, 안전 확보 등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일원에 조성 중인 황토현 축구장을 비롯해 7



정읍시는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관광체육국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과 관광객의 삶과 밀접한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년 만에 개최되는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정읍시민과 정읍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장산 자연휴양림 시범 운영 계획도 설명했다.

아울러 10월 14일부터 열리는 제18회 구절초 꽃축제와 차향다원 운영 활성화, 기적의도서관의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거점기관 선정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가 잇따라 마련돼 시민

들에게 풍성한 가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준양 국장은 "관광과 체육, 산림과 문화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읍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에 또 만나요’ ...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전 폐회

개최지 고창군, 종합우수 차지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진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지 고창군의 종합우승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고창군은 전북장애인체전 19년 역사상 군부 최초로 종합우승을 이뤄내며 장애인 스포츠 성지의 저력을 과시했다.

고창군은 28일 오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을 열고, 3일간 이어진 열전의 막을 내렸다.

고창군선수단은 수영, 육상, 태권도, 배드민턴, 보치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파크골프, 게이트볼, 좌식배구에서도 2위를 거두며 종합우승을 견인했다.

폐회식은 대회 영상 상영으로 그간의 감동적인 순간을 되새기며 시작됐다. 장애인체전 종합우승은 고창군이 차지했다. 이어 폐회식과 대회기 강하, 차기 개최지의 대회기 전달이 이어졌으며, 심덕섭 고창군수의 환송사와 집행위원장의 폐회선언을 끝으로 대회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지난 26~28일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개막식에서 선수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발된 약 2천 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게이트볼, 태권도, 보치아, 탁구, 론볼 등 15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민체전 준우

승에 이어, 장애인체전 종합우승은 군민들이 하나되어 이룬 뜻깊은 성과다"며 "앞으로도 반대편체육과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장애인체육 저변확대와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놀이 역사규명 학술대회’ 개최

보존·활용 방안 모색

정읍시가 고대 저수지 '놀이'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 놀이 역사규명 학술대회'를 개최, 문화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놀이의 가치와 향후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정읍시 주최, (재)전북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문화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놀이의 가치와 향후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정읍시 주최, (재)전북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문화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놀이의 가치와 향후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의미를 살피고, 보존·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최원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스도 전북문화유산연구원 이 '놀이의 조사성과와 의의'를, 허의행 수원대학교 교수가 '고지형 분석을 통한 놀이 복원'을 발표했다.

권순강 건축문화연구소 여지 소장은 '제방 형식과 관계 방법'을, 박세웅(주)동원건축사사무소 실장은 '보존 전 시 및 정비 활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강봉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

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놀이 복원정비와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놀이가 단순한 농업 시설을 넘어 공동체 삶을 지탱해온 역사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놀이는 정읍의 농업과 공동체를 지탱해온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성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지난 26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세부 및 시행계획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고창군을 포함한 3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틀니 의



료비 지원사업 △어린이 충치예방(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운영 △학동구강보건실 운영 △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구강검진 및 치료지원 △보건소 사업연계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이 가공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판로 개척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황 가공상품, 美 LA 첫 수출

정읍시, 지역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이 가공 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판로 개척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읍시는 지난 26일 오전 9시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정읍 지황 가공상품 해외수출 기념행사'를 열고,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지황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미국 LA 수출을 기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가공업체, 정읍지황융합사업단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수출 계획과 기대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지황차와 숙지황 현미발, 숙지황 현미스낵, 정읍생파차, 생화시리얼, 생화누룽지 등 10여 종의 가공상품이 포함됐다. 정읍지황 국외 판촉홍보를 위

한 이번 수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생협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지황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정읍지황은 조선시대에는 임금께 진상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가치가 높아, 오늘날에도 약용과 가공 활용가치가 큰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은 "정읍지황은 약재적 가치뿐 아니라 가공상품으로서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1992년 지황 주산단지 지정된 이후 2015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2년부터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나아가 정읍지황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규사업 선정 19개 군단위 지자체 중 최대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468억원 확보 쾌거

부안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노후상수관망 정비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체 46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신규사업에 선정된 전국 19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으로 최대 규모이며, 전북특별자치도내 단위사업자구별 최대 사업비로 사업대상지역은 부안을 시가지 구간과 행안·계화·하서면 일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다량 급수지역으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88.2km 구간의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GIS 구축 및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시행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하여 매년 약 69만 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1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맑은 수돗물 공급이 예상된다.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군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삶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지역 농축협 우리 쌀 나눔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 대성농협(조합장 박운규),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 오교을)이 지난 25일 고창군청에서 우리 쌀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우리 쌀 나눔행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쌀 소비촉진과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목표로 전개 중인 농협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 고창군지부와 고창군 농축협 합동으로 우리 쌀 2200kg을 전달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농심천심운동은 단순히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이웃과 농업의 가치를 함께 살려가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진단·대안 모색 설명회

정읍시의회 송전선로및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정읍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전북지역 송전탑 문제 진단과 대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현재 전북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송전선로

갈등의 현황을 설명했다.

또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보호와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고려한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